

STX솔라,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 설치

STX솔라(대표 최진석)는 최근 경북 구미 4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했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STX솔라는 6월 착공에 들어가 2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15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350MWh의 무공해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생산 전력은 원유 568톤을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274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솔라는 태양광 발전단지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생산 전력을 구매해 민간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남동발전과 구미, 대구 등 영남권 유희부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STX솔라는 7월에도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소재 350MWh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완공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8/27>